30세 이상 미혼여성의 결혼관, 자녀관 및 고위험 임신지식에 관한 연구

제 남 주¹ · 최 소 영²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¹,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건강과학 연구원²

= Abstract =

The Study on Unmarried Women Over the Age of 30, Regarding the Value of Marriage and Children and the Knowledge of High Risk Pregnancy

Nam Joo Je¹ · So Young Choi²

Graduate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¹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Health Science²

Objectives: This aim of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lue of marriage, children and knowledge on high risk pregnancy of single women over the age of 30.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90 unmarried women in 3 cities and 3 guns located in G-do.

Results: The value on marriage of the subjects were in order of equal division of family roles was 3.95, marriage postponement 3.47, traditional value on marriage 2.82, and open value on marriage 2.30.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raditional value on marriage were ages, marriage plans, and child plans.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rriage postponement were found in marriage life of parents, marriage plans and child plans. Significant differences in open value on marriage were found in marriage life of parents, marriage plans, child plans, and residential area. The value on children of the subjects were in the order of childbirth postponement 2.65, need for children 2.49, and acceptance of children in non-marriage 2.13. General characteristic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eed for children were age, birth order, marital status of parents, marriage life of parents, marriage plans, child plans.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birth postponement were found in age, education, occupation, income, number of family, marital status of parents, marriage life of parents, marriage plans, child plans. As for the subjects' knowledge on high risk pregnancy,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was 55.5%.

Conclusion: Through these results, in the family, the parents should become the role model for the children, and social atmosphere possible of equal division of family roles and a change in perception of the men are required. It is recommended that to develop nursing education for improving high risk pregnancy knowledge in unmarried women.

Key Words: unmarried, women, marriage, children, high risk pregnancy

*본 논문은 제남주의 석사학위 논문 수정 발췌함.

교신저자: 최소영,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92번지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전화번호: 055-772-8241, 팩스번호: 055-772-8209, E-mail: csy4214@hanmail.net

원고접수: 2014년 5월 30일, 원고심사: 2014년 6월 25일, 원고채택: 2014년 7월 10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됨으로써 개인주의와 자아실현 욕구가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결혼관과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Kim, 2013; Song과 Lee, 2011; Oh, 2009), 이로 인해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전통적 결혼관이 약화 되었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자녀를 적게 출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Kim 등, 2009; Song과 Lee, 2011).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저출산 현상과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현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nes, 2007). 실제로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초혼연령은 남자는 1990년 27.9세에서 2012년 32.1세, 여자는 1990년 24.8세에서 2012년 29.4세로 지난 20여 년 간 남·여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초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0년 25.9세에서 2012년 30.5세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2012년 출생아의 68%를 30세 이상의 산모가 출산하였으며,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는 18.7%로 2011년보다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초산모 출산연령 증가는 고위험 임신과 고위험 신생아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실제로 2.5 kg 미만의 저체중아 출산율은 지난 10년간 26.6% 증가했다(Statistics Korea, 2013).

결혼관은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해 개인이 지니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Kim과 Lee, 1998), 결혼시기와 관련이 있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일수록 초혼연령이 빠른 경향을 보인다(Choi와 Ok, 2003).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미혼여성은 63.2%에서 56.7%로, 미혼남성은 69.8%에서 67.5%로 여성과 남성 모두 감소하게 되었지만(Ministry Health & Welfare, 2013), 미혼여성의

감소폭은 미혼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혼 필요성은 자녀 필요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Do, 2011; Lee, 2005).

자녀관은 부모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기대하는 만족감과 부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Kim, 2007),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출생자녀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Lee, 2006). 그러나 미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은 기혼여성보다는 부정적으로 조사되었는데(Shin과 Bang, 2009), 이와 같은 사회적 형태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30세 이상의 미혼여성의 결혼관과 자녀관을 파악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결혼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교육, 소득, 직업 등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Lee, 2006; Mun, 2012). 그러나 연구결과들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어(Lee, 2006; Yoo와 Hyun, 2010),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들에 따라서 결혼관과 자녀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초산모의 출산연령 상승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35세 이상 초산모는 유산 및 조산의 빈도가 높으며, 기형아의 출산율도 높다. 또한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임신성 당뇨 등의 여러 가지 임신 중 합병증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10). 초산모의 연령증가는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식 부족도 하나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Bayrampour 등, 2012), 초산모의 출산연령 상승에 따른 산모의 합병증 발생과 신생아 건강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은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Choi와 Lee, 2011). 따라서 만혼경향이 있는 30세 이상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이들의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해 보는 것은 저출산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미혼남녀(Kang 등, 2010; Jin과 Jung, 2010)와 대학생(Kim과 Song, 2012; Kim 등, 2011; Na와 Kim, 2012; Lee 등, 2012), 그리고 중·고등학생(Kim, 2012; Baek 등, 2013)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고위험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령에 있는 30세 이상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관, 자녀관을 파악하고 고령 임신에 따른 고위험 임신지식을 확인하는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30세 이상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관, 자녀관 및 고위험 임신지식 등을 확인하여 저출산과 고위험 임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30세 이상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관, 자녀관 및 고위험 임신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및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식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 자녀관 및 고위험 임신지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결혼관과 자녀관 및 고위험 임신지식에 관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3개의 시와 3개의 군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미혼여성 192명을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인 편의표집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0.3

으로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최소 인원은 161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을 20%를 감안하여 192명을 표집 하였다. 취업 상태에 따른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비율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7월 기준으로 30~49세의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71.4%,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 29.6%로 나타나, 이 비율을 고려해서 직장인과 무직의 비율을 7:3으로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직장인 중 의료관련 종사자는 설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문항은 Kim (2012)의 연구와 Mun (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가족 수, 가족과 동거 여부, 출생순위,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결혼생활, 결혼계획, 출산계획, 거주 지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결혼관

본 연구에서는 Kim (2012)이 개발한 전통적 결혼관(5문항), 개방적 결혼관(4문항), 결혼지연성(4문항), 가족공동역할분담(2문항) 총 4개의 영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범위: 1~5)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전통적 결혼관'은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적인 결혼적령기가 있으며,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보다는 가족을 생각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지연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공부, 직장 등을 이유로 결혼에 대한 선택을 유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의미하며, '개방적 결혼관'은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결혼관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보다는 사랑을 더욱 중시하며,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관계나 동거가 가능하고, 결혼 대상자가 같은 동성이어도 상관없다는 가치관을 말한다. '가족공동역할분담'은 점수가 높

을수록 남성과 여성이 집안일과 가족 부양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Kim (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통적 결혼관 영역 .62, 결혼지연성 영역 .61, 개방적 결혼관 영역 .65, 가족공동 역할분담 영역 .6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결혼관 영역 .62, 결혼지연성 영역 .63, 개방적 결혼관 영역 .66, 가족공동 역할분담 영역 .81이었다.

2) 자녀관

본 연구에서는 Kim (2012)이 개발한 14개 문항의 자녀관 도구를 사용하여 미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가 .50으로 낮은 2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자녀관은 자녀필요성(6문항), 자녀 지연성(4문항), 비혼 자녀허용성(2문항)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녀필요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자녀지연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더 우선시하는 가치관으로 자녀출산이나 입양 등의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는 시기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비혼 자녀 허용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입양하거나 출산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이 원한다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 (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자녀필요성 영역은 .74, 자녀지연성 영역은 .74, 비혼 자녀허용성 영역은 .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자녀필요성 영역 .76, 자녀지연성 영역 .73, 비혼 자녀허용성 영역 .89이었다.

3) 고위험 임신지식

고위험 임신지식은 산모의 나이와 연관된 임신위험에 대한 지식으로 Tough 등(2006)에 의해 개발되었

고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한 어학원 강사 1인과 산부인과 전문의 1인, 간호학과 교수 1인에 의하여 번역, 역번역으로 번역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쳤다. 역번역된 자료를 원척도와 비교하여 가능한 원척도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최종 번역된 도구를 완성하여 측정하였다. 고위험 임신지식은 산모의 나이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에 대한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 '거짓', '모름'으로 답변하는 방식이다. 점수범위는 0~10점이며 '참'은 1점, '거짓·모름'은 0점으로 계산하였다. 각 부분의 지식에 대한 총체적인 점수를 생성하기 위해 정답률은 백분율(%)로 제시하여 백분율이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 Kuder Richardson 20은 .84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였다. 연구보조자는 2명으로 자료수집 방법과 과정에 관한 연구보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대한 취지와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는 3개 시, 3개 군마다 32부씩(직장인 23부, 무직 9부) 총 192부의 설문지를 미혼여성들이 있는 직장(은행, 백화점, 가게, 학교)과 취업준비 학원, 극장, 공원, 커피숍 등에서 연구목적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회수한 192부 중 미완성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총 19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G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No. GIRB-G13-Y-0014)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30세 이상의 미혼여성에게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과정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 연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시

행했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결혼관, 자녀관 및 고위험 임신지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 자녀관, 고위험 임신지식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0~34세가 135명(71.1%)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33.43 ± 3.40 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졸이 77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수준은 150~199만원 37명(19.5%)이 가장 많았다. 가족 수는 4명이 94명(49.5%)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과의 동거여부는 '함께 산다' 116명(61.1%)으로 가장 많았다. 출생순위는 맏이가 67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결혼 상태는 기혼이 130명(68.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보통이다'가 73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 결혼계획이 있는 대상자가 131명(68.9

%)으로 가장 많았다. 미래 자녀 계획은 있는 대상자가 164명(86.3%)으로 가장 많았다(Table 3).

2. 대상자의 결혼관

본 연구대상자의 결혼관은 가족공동 역할분담이 5점 만점(범위: 1~5)에서 3.95 ± 0.88 점으로 가장 높았고, 결혼지연성이 3.47 ± 0.73 점, 전통적 결혼관이 2.82 ± 0.74 점, 개방적 결혼관이 2.30 ± 0.82 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 대상자의 자녀관

본 연구 대상자의 자녀관은 자녀지연성이 5점 만점(범위: 1~5)에서 2.65 ± 0.75 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필요성이 2.49 ± 0.73 점, 비혼 자녀허용성이 2.13 ± 1.10 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4. 대상자의 고위험 임신지식

본 연구 대상자의 고위험 임신지식은 10점 만점(범위: 0~10)에서 평균 5.55 ± 2.90 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답률 평균은 55.5%였으며,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35세 이상의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임신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로 73.7%였고 '35세 이상의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임신 중 의학적 문제를 가질 확률이 높다' 67.4%, '35세 이상의 여성은 젊은 여성과

Table 1. Scores of Values on Marriage, Views on Children

(N=190)

Variables	Range	M±SD	Min	Max
Values on marriage				
Traditional marriage	1~5	2.82 ± 0.74	1	5
Marriage postponement	1~5	3.47 ± 0.73	1	5
Open marriage value	1~5	2.30 ± 0.82	1	4
Equal division of family roles	1~5	3.95 ± 0.88	1	5
Values on children				
Need for children	1~5	2.49 ± 0.73	1	4.83
Childbirth postponement	1~5	2.65 ± 0.75	1	4.75
Acceptance of children in non-marriage	1~5	2.13 ± 1.10	1	5

비교하였을 때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64.2% 순이었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35세 이상의 여성은(인공수정을 받지 않더라도) 젊은 여성보다 태아의 확률이 높다' 26.3%였고, '35세 이상의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 43.2%, 20세 이하의 여성이 20~29세의 여성보다 저체중아를 낳을 위험성이 높다' 45.3% 순이었다 (Table 2).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 자녀관 및 고위험 임신지식의 차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전통적 결혼관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계획, 자녀계획이었다. 연령에 따른 전통적 결혼관은 40~44세의 대상자가 3.13±0.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계획이 있는 대상자가 2.91±0.70점으로 없는 대상자 2.32±0.92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90, p=.008$). 또한, 자녀계획이 있는 대상자가 2.90±0.70점으로 없는 대상자 2.36±0.85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53, p=.001$).

결혼지연성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 부모의 결혼생활, 결혼계획, 자녀계획이었다. 부모의 결혼생활에 따른 결혼지연성은 부모의 결혼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4.30±0.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2.50, p=.043$). 결혼계획에 따른 결혼지연성은 결혼계획이 있는 대상자가 3.31±0.66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F=13.03, p<.001$). 자녀계획에 따른 결혼지연성은 자녀계획이 없는 대상자가 4.09±0.78점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4.93, p<.001$).

개방적 결혼관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 부모의 결혼생활, 결혼계획, 자녀계획, 거주 지역이었다. 부모의 결혼생활 '아주 행복하다'(1.79±0.87점)고 응답

Table 2. Scores of Knowledge on High Risk

Items	Score (0~1) (Mean±SD)	(N=190) Correct answers n (%)
Women≥35 years experience more problems getting pregnant than younger women	0.74±0.44	140 (73.7)
Women≥35 years are more likely to develop medical problems during pregnancy than younger women	0.67±0.47	128 (67.4)
Women≥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baby with Down Syndrome compared to younger women	0.64±0.48	122 (64.2)
Women≥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baby with a congenital anomaly than younger women	0.62±0.89	118 (62.1)
Women≥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caesarean section than younger women	0.63±0.49	119 (62.6)
Women≥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preterm than younger women	0.61±0.49	116 (61.1)
Women≥35 years are eligible for amniocentesis during pregnancy	0.49±0.50	93 (48.9)
Women≤20 years are at higher risk of having a low birth weight baby than women 20~29 years	0.45±0.50	86 (45.3)
Women≥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low birth weight baby than younger women	0.43±0.50	82 (43.2)
Women≥35 years are more likely to have a multiple pregnancy than younger women(even if not using fertility treatment)	0.26±0.44	50 (26.3)
Total	5.55±2.90	55.5%

Table 3. Differences in Value on Marri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Traditional marriage		Marriage postponement		Open marriage value		Equal division of family roles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Age (yr)	30~34	135 (71.1)	2.87±0.72	3.24	3.46±0.69	1.25	2.24±0.84	1.30	3.90±0.93	1.59
	35~39	43 (22.6)	2.60±0.80	(.041)	3.40±0.80	(.288)	2.45±0.82	(.275)	3.97±0.77	(.206)
	40~44	12 (6.3)	3.13±0.53		3.77±0.86		2.44±0.56		4.38±0.61	
Education	High school	53 (28.0)	2.88±0.73	0.62	3.39±0.65	0.35	2.51±0.67	2.47	3.87±0.69	1.00
	College	43 (22.6)	2.81±0.64	(.600)	3.49±0.68	(.785)	2.22±0.78	(.063)	4.14±0.73	(.391)
	Under graduate	77 (40.5)	2.84±0.77		3.48±0.74		2.16±0.81		3.93±0.88	
	Graduate	17 (8.9)	2.60±0.86		3.57±1.04		2.50±1.20		3.79±1.53	
Job	Yes	140 (73.7)	2.80±0.76	-.71	3.43±0.76	-1.04	2.27±0.81	-0.75	3.94±0.96	-0.11
	No	50 (26.3)	2.89±0.68	(.479)	3.56±0.63	(.298)	2.38±0.86	(.453)	3.96±0.63	(.906)
Income (10,000won)	100~149	28 (14.7)	2.81±0.63	1.30	3.31±0.67	1.10	2.29±0.61	0.97	4.00±0.69	0.22
	150~199	37 (19.5)	2.77±0.73	(.262)	3.34±0.73	(.359)	2.19±0.70	(.437)	3.81±0.84	(.950)
	200~249	31 (16.3)	2.83±0.79		3.51±0.80		2.22±0.88		4.00±1.02	
	250~299	12 (6.3)	3.25±0.93		3.77±1.03		2.73±1.06		3.96±1.50	
	≥300	32 (16.8)	2.64±0.77		3.46±0.71		2.24±0.89		3.98±1.02	
	None	50 (26.3)	2.89±0.68		3.56±0.63		2.38±0.86		3.96±0.63	
Family (numbers)	≤3	40 (21.1)	2.86±0.71	1.21	3.59±0.73	0.76	2.46±0.85	0.88	3.98±0.85	0.49
	4	94 (49.5)	2.81±0.74	(.305)	3.44±0.69	(.514)	2.30±0.75	(.452)	3.99±0.78	(.689)
	5	35 (18.4)	2.67±0.70		3.36±0.69		2.20±0.84		3.79±0.95	
	≥6	21 (11.0)	3.06±0.85		3.55±0.95		2.17±1.01		3.95±1.23	
Whether living family	With family	116 (61.1)	2.86±0.67	1.14	3.47±0.70	0.31	2.26±0.83	0.51	4.00±0.86	0.65
	Living apart	42 (22.1)	2.86±0.85	(.319)	3.52±0.73	(.729)	2.30±0.76	(.598)	3.88±0.89	(.523)
	Living alone	32 (16.8)	2.64±0.80		3.38±0.84		2.43±0.86		3.83±0.97	
Birth order	First	67 (35.3)	2.81±0.70	0.10	3.46±0.75	0.50	2.26±0.85	0.14	4.01±0.79	0.94
	Second	45 (23.7)	2.82±0.67	(.958)	3.37±0.65	(.681)	2.36±0.70	(.932)	3.76±0.74	(.422)
	Youngest	61 (32.1)	2.82±0.82		3.52±0.77		2.29±0.82		3.99±0.99	
	Only child	17 (8.9)	2.92±0.81		3.57±0.75		2.35±1.01		4.03±1.12	
Marriage status of parents	Married	130 (68.4)	2.78±0.72	0.80	3.39±0.72	1.38	2.24±0.80	1.11	3.87±0.92	1.30
	Divorce	13 (6.8)	2.83±1.02	(.494)	3.63±0.83	(.248)	2.35±0.94	(.345)	4.00±0.87	(.275)
	Remarriage	10 (5.3)	2.84±0.88		3.58±0.88		2.28±1.11		4.00±1.22	
	Bereavement	37 (19.5)	2.99±0.68		3.64±0.68		2.51±0.75		4.19±0.57	
Marriage life of parents	Very happy ^a	35 (18.4)	2.98±0.85	1.79	3.38±0.78	2.50	1.79±0.87	8.04	4.00±1.05	1.16
	Happy ^b	60 (31.6)	2.74±0.67	(.132)	3.34±0.69	(.043)	2.18±0.76	(p<.001)	3.76±0.98	(.328)
	Common ^c	73 (38.4)	2.87±0.66		3.55±0.64		2.48±0.65	a<c,d,e	4.05±0.70	
	Unhappy ^d	17 (8.9)	2.84±1.00		3.51±0.99		2.79±0.91		3.97±0.94	
	Very unhappy ^e	5 (2.7)	2.12±0.64		4.30±0.54		3.00±1.08		4.30±0.27	
Marriage plan	Yes ^a	131 (68.9)	2.91±0.70	4.90	3.31±0.66	13.03	2.25±0.78	3.53	3.90±0.91	0.87
	No ^b	15 (7.9)	2.32±0.92	(.008)	4.10±0.84	(<.001)	2.83±1.02	(.031)	4.20±0.82	(.418)
	I don't no ^c	44 (23.2)	2.74±0.73	a>b	3.73±0.70	a<b,c	2.26±0.81	a<b	4.00±0.82	
Birth plan	Yes	164 (86.3)	2.90±0.70	3.53	3.37±0.67	-4.93	2.25±0.79	-2.19	3.91±0.89	-1.65
	No	26 (13.7)	2.36±0.85	(.001)	4.09±0.78	(<.001)	2.63±0.95	(.029)	4.21±0.83	(.100)
Residential area	City	95 (50.0)	2.76±0.74	-1.15	3.49±0.75	0.43	2.49±0.79	3.36	3.98±0.77	0.57
	Gun	95 (50.0)	2.89±0.74	(.248)	3.44±0.71	(.668)	2.11±0.81	(.001)	3.91±0.98	(.566)

^aScheffe

한 집단이'보통이다(2.48±0.65점)'·'별로 행복하지 않다(2.79±0.91점)'·'전혀 행복하지 않다(3.00±1.08점)'고 응답한 집단보다 개방적 결혼관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8.04, p<.001). 결혼계획 '있다'(2.25±0.78점)라고 응답한 집단이'없다'(2.83±1.02점)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개방적 결혼

관이 유의하게 낮았다(F=3.53, p=.031). 또한 자녀 계획이 없는 대상자가 2.63±0.95점으로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19, p=.029), 거주지역이 시 단위(2.49±0.79점), 군 단위(2.11±0.81점)순으로 시 단위의 개방적 결혼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36, p=.001).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

무, 소득수준, 가족과 동거여부, 출생순위, 부모의 결혼 상태 등은 개방적 결혼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관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자녀필요성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출생순위,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결혼생활, 결혼계획, 자녀계획이었다. 즉, 30~34세의 대상자가 2.57 ± 0.73 점으로 35~39세 (2.24 ± 0.67 점)인 대상자 보다 자녀

Table 4. Differences in Value on Childre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eed for children		Childbirth postponement		Acceptance of children in non-marriage	
		Mean $\pm$ SD	t or F (p)	Mean $\pm$ SD	t or F (p)	Mean $\pm$ SD	t or F (p)
Age* (yr)	30~34 ^a	2.57 $\pm$ 0.73	3.44	2.59 $\pm$ 0.71	4.09	2.14 $\pm$ 1.14	0.08
	35~39 ^b	2.24 $\pm$ 0.67	(.034)	2.91 $\pm$ 0.83	(.018)	2.13 $\pm$ 1.02	(.918)
	40~44 ^c	2.57 $\pm$ 0.78	a>b	2.35 $\pm$ 0.69	a<b	2.00 $\pm$ 0.93	
Education	High school	2.64 $\pm$ 0.76	2.38	2.86 $\pm$ 0.76	3.35	2.43 $\pm$ 1.03	2.63
	College	2.45 $\pm$ 0.60	(.071)	2.71 $\pm$ 0.65	(.020)	2.17 $\pm$ 1.10	(.051)
	Under graduate	2.50 $\pm$ 0.70		2.52 $\pm$ 0.70		1.97 $\pm$ 1.03	
	Graduate	2.12 $\pm$ 0.93		2.34 $\pm$ 1.00		1.76 $\pm$ 1.43	
Job	Yes	2.46 $\pm$ 0.74	-1.17	2.58 $\pm$ 0.75	-2.06	2.08 $\pm$ 1.15	-1.20
	No	2.60 $\pm$ 0.67	(.241)	2.83 $\pm$ 0.74	(.040)	2.27 $\pm$ 0.92	(.232)
Income* (10,000 won)	100~149 ^a	2.53 $\pm$ 0.49	1.72	2.70 $\pm$ 0.69	3.25	2.30 $\pm$ 0.99	1.32
	150~199 ^b	2.36 $\pm$ 0.72	(.131)	2.67 $\pm$ 0.63	(.008)	2.23 $\pm$ 1.17	(.257)
	200~249 ^c	2.49 $\pm$ 0.78		2.64 $\pm$ 0.75	d<f	2.08 $\pm$ 1.32	
	250~299 ^d	2.90 $\pm$ 1.00		1.90 $\pm$ 0.83		2.00 $\pm$ 1.21	
	≥ 300 ^e	2.30 $\pm$ 0.78		2.57 $\pm$ 0.80		1.72 $\pm$ 1.05	
	None ^f	2.60 $\pm$ 0.67		2.83 $\pm$ 0.74		2.27 $\pm$ 0.92	
Family* (numbers)	≤ 3 ^a	2.32 $\pm$ 0.72	2.37	2.98 $\pm$ 0.79	7.34	2.16 $\pm$ 1.11	0.47
	4 ^b	2.63 $\pm$ 0.65	(.071)	2.62 $\pm$ 0.69	(<.001)	2.20 $\pm$ 1.06	(.703)
	5 ^c	2.34 $\pm$ 0.63		2.68 $\pm$ 0.59	a>d	2.00 $\pm$ 1.04	
	≥ 6 ^d	2.48 $\pm$ 1.06		2.08 $\pm$ 0.85		1.95 $\pm$ 1.35	
Whether living	With family	2.51 $\pm$ 0.72	1.02	2.58 $\pm$ 0.71	1.33	2.08 $\pm$ 1.04	0.31
	Living apart	2.57 $\pm$ 0.79	(.361)	2.71 $\pm$ 0.83	(.265)	2.18 $\pm$ 1.14	(.730)
	Living alone	2.33 $\pm$ 0.65		2.80 $\pm$ 0.78		2.23 $\pm$ 1.27	
Birth order*	First ^a	2.56 $\pm$ 0.80	2.99	2.62 $\pm$ 0.84	0.30	2.12 $\pm$ 1.11	2.49
	Second ^b	2.53 $\pm$ 0.55	(.032)	2.74 $\pm$ 0.57	(.821)	2.39 $\pm$ 1.05	(.061)
	Youngest ^c	2.53 $\pm$ 0.71	a>d	2.61 $\pm$ 0.75		1.86 $\pm$ 0.91	
	Only child ^d	2.00 $\pm$ 0.73		2.60 $\pm$ 0.81		2.41 $\pm$ 1.55	
Marriage status of parents*	Married ^a	2.54 $\pm$ 0.69	4.20	2.55 $\pm$ 0.72	3.13	2.08 $\pm$ 1.10	1.15
	Divorce ^b	2.65 $\pm$ 1.17	(.007)	3.00 $\pm$ 1.02	(.027)	2.08 $\pm$ 0.95	(.330)
	Remarriage ^c	1.73 $\pm$ 0.57	a,b,d>c	2.48 $\pm$ 0.67		2.75 $\pm$ 1.78	
	Bereavement ^d	2.49 $\pm$ 0.60		2.89 $\pm$ 0.70		2.12 $\pm$ 0.86	
Marriage life of parents*	Very happy ^a	2.48 $\pm$ 1.02	3.26	2.28 $\pm$ 0.65	7.96	2.01 $\pm$ 1.39	0.49
	Happy ^b	2.43 $\pm$ 0.62	(.013)	2.66 $\pm$ 0.66	(<.001)	2.05 $\pm$ 1.07	(.742)
	Common ^c	2.52 $\pm$ 0.59	d>e	2.68 $\pm$ 0.70	a,b,c,d<e	2.27 $\pm$ 0.97	
	Unhappy ^d	2.90 $\pm$ 0.77		2.76 $\pm$ 0.95		2.06 $\pm$ 1.04	
	Very unhappy ^e	1.67 $\pm$ 0.42		4.10 $\pm$ 0.60		2.00 $\pm$ 1.22	

*Scheffe

Table 4. Differences in Value on Childre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

(N=1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eed for children		Childbirth postponement		Acceptance of children in non-marriage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arriage plan [*]	Yes ^a	2.61±0.70	6.47	2.47±0.63	25.68	2.11±1.06	0.40
	No ^b	2.06±0.61	(.002)	3.73±0.72	(<.001)	1.97±1.20	(.666)
	I don't no ^c	2.29±0.75	a>b,c	2.80±0.75	b<c<a	2.24±1.19	
Birth plan	Yes	2.58±0.71	4.23	2.49±0.64	-8.04	2.16±1.10	0.92
	No	1.96±0.60	(<.001)	3.60±0.67	(<.001)	1.94±1.09	(.359)
Residential area	City	2.53±0.63	0.69	2.74±0.75	1.84	2.17±0.98	0.59
	Gun	2.46±0.81	(.486)	2.55±0.75	(.067)	2.08±1.20	(.553)

^{*}Scheffe

필요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3.44$, $p=.034$). 또한 대상자가 독녀인 경우(2.00 ± 0.73 점)보다 딸이(2.56 ± 0.80 점)의 자녀필요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2.99$, $p=.032$). 부모가 재혼인 대상자의 자녀필요성 점수(1.73 ± 0.57 점)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F=4.20$, $p=.007$). 부모의 결혼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2.90 ± 0.77 점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한 대상자의 점수인 1.67 ± 0.42 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3.26$, $p=.013$). 또한 결혼계획이 있는 대상자가 2.61 ± 0.70 점으로 다른 군에 비해 자녀 필요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6.47$, $p=.002$),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대상자가 2.58 ± 0.71 점으로, '없다'라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4.23$, $p<.001$). 교육수준, 직업유무, 소득수준, 가족 수, 동거여부, 거주 지역 등은 자녀필요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지연성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소득수준, 가족 수,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결혼생활, 결혼계획, 자녀계획이었다. 30~34세인 대상자가 2.59 ± 0.71 점으로 35~39세(2.91 ± 0.83 점)보다 자녀지연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F=4.09$, $p=.018$). 또한, 고졸인 대상자가 2.86 ± 0.76 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3.35$, $p=.020$), '소득 없음' (2.83 ± 0.74 점)이 '250~299만원' ($1.90\pm$

0.83 점)보다 자녀지연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25$, $p=.008$). 가족이 3명 이하인 대상자가 2.98 ± 0.79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3.13$, $p=.027$), 부모가 별거·이혼인 대상자가 3.00 ± 1.02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F=3.13$, $p=.027$), 부모의 결혼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대상자가 4.10 ± 0.60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7.96$, $p<.001$). 결혼계획이 '없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3.73 ± 0.72 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25.68$, $p<.001$), 자녀계획이 '없다'고 답한 대상자가 3.60 ± 0.67 점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8.04$, $p<.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 임신지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 임신지식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고위험 임신지식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소득수준이었다. 소득수준이 200~249만원인 대상자의 고위험 임신지식은 6.45 ± 3.23 점으로 100~149만원인 대상자의 고위험 임신지식 3.50 ± 2.52 점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58$, $p=.004$).

고 찰

본 연구는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결혼관, 자녀관 및 고위험 임신지식을 파악하여 저출산과 고위험 임신을

Table 5. Differences in High Risk Pregnancy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High Risk Pregnancy Knowledge	
		Mean±SD	t or F (p)
Age (yr)	30~34	5.43±3.08	0.44 (.645)
	35~39	5.91±2.46	
	40~44	5.58±2.31	
Education	High school	5.30±2.79	0.76 (.518)
	College	6.09±2.93	
	Under graduate	5.51±2.99	
	Graduate	5.12±2.80	
Job	Yes	5.38±2.99	-1.34 (.180)
	No	6.02±2.61	
Income* (10,000 won)	100~149 ^a	3.50±2.52	3.58 (.004)
	150~199 ^b	5.65±2.78	
	200~249 ^c	6.45±3.23	
	250~299 ^d	5.25±3.36	
	≥300 ^e	5.72±2.62	
	Nonef	5.39±2.48	
Family (numbers)	≤3	5.90±2.60	0.45 (.713)
	4	5.39±2.95	
	5	5.77±2.89	
	≥6	5.19±3.33	
Whether living	With family	5.78±2.81	0.95 (.388)
	Living apart	5.12±3.26	
	Living alone	5.28±2.75	
Birth order*	First	5.79±2.92	1.62 (.186)
	Second	6.11±2.84	
	Youngest	5.02±2.95	
	Only child	5.00±2.65	
Marriage status of parents*	Married ^a	5.45±2.97	0.35 (.787)
	Divorce ^b	6.15±2.88	
	Remarriage ^c	6.10±3.67	
	Bereavement ^d	5.51±2.51	
Marriage life of parents*	Very happy ^a	6.26±2.97	1.20 (.309)
	Happy ^b	5.37±3.01	
	Common ^c	5.23±2.83	
	Unhappy ^d	5.59±2.50	
Marriage plan*	Very unhappy ^e	7.20±3.11	0.65 (.519)
	Yes ^a	5.44±2.88	
	No ^b	6.33±2.97	
	I don't no ^c	5.61±2.97	
Birth plan	Yes	5.50±2.91	-0.56 (.573)
	No	5.85±2.87	
Residential area	City	5.33±2.83	-1.05 (.295)
	Gun	5.77±2.97	

*Scheffe.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인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결혼관을 확인한 결과, 남녀가 동등하게 가족의 일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족공동 역할분담은 5점 만점에 3.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 결혼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결혼지연성은 3.47점, 결혼이 꼭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연령에 결혼해야하며 가족에 중심을 두는 전통적 결혼관은 2.82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나 동거와 같이 비제도적 방식을 허용하는 개방적 결혼관은 2.3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전통적 결혼관은 5점 만점(범위: 1~5) 중 2.82점으로 중간점수 보다 낮은 수준이고 반대로 결혼지연성은 높게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인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결혼은 만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가족공동 역할분담 점수가 결혼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인 30세 이상 미혼여성들은 남녀가 가족부양과 가사 및 육아양육에 동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실에는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직장과 가사 및 육아양육을 병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직장을 가진 여성들은 결혼진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여성의 가족역할 공동분담을 원하는 기대에 맞춰 남녀가 함께 직장을 다니면서 양육 및 돌봄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인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전통적 결혼관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6.4점이었고, Jin과 Jung (2010)의 20~44세 미혼여성의 전통적 결혼관은 2009년 69.8점으로 측정되어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전통적 결혼관은 더 낮은 것으로 20세가 포함된 Jin과 Jung (2010)의 대상자보다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전통적 결혼관이 더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 중 결혼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8.9%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Shin과 Bang (2007)의 연구대상자인 미혼여성의 결혼관과 비교해보면 결혼

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7.7%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 중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3.2%로 나타나, 결혼계획이 불확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개방적 결혼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결혼생활이 자녀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행할수록 결혼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한 Lee (200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자녀관 중 자녀지연성은 5점 만점 중 2.65점, 자녀필요성은 2.49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입양하거나 출산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이 원한다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비혼 자녀허용성은 2.13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미혼여성의 자녀관을 확인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대상자인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자녀필요성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9.5점이었고, Jin과 Jung (2010)의 연구대상자인 20~44세 미혼여성의 자녀필요성은 2009년 62.3점으로 측정되어, 전통적 결혼관과 마찬가지로 20세가 포함된 Jin과 Jung (2010)의 연구대상자보다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자녀필요성은 더 낮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인 30세 이상 미혼여성들의 자녀필요성과 비혼 자녀허용성은 낮고 자녀지연성이 높은 것은 앞으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과 고령임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30세 이상 미혼여성 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녀필요성 도구에는 종의 보존 항목과 전통적인 자녀관 문항이 섞여져 있어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필요성 하부요인을 세분화하고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을 통한 반복연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자녀필요성은 연령, 출생순위,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결혼생활, 결혼의향(미래 결혼

계획), 자녀계획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자녀필요성은 30~34세(2.57점)가 35~39세(2.24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Cho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부모 결혼상태가 재혼보다 기혼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별거, 이혼 및 재혼 경험이 없는 기혼상태 집단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Cho (2011)의 연구결과와 부모의 결혼상황, 이혼 및 별거 경험도 자녀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Kim (2008)과 Lee (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부모와 가정환경은 미혼여성의 자녀 필요성과 지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자녀지연성은 직업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자녀 출산에 경제력은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여성 고용률은 53.5%, 청년 고용률은 24.2%로 여성은 OECD 평균보다 3.5%, 청년의 경우는 15.1% 낮은 수치이다(OECD, 2013).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미혼인구의 결혼의향을 높이고 자녀지연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혼성인의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미혼여성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포함한 출산장려 정책 개발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고위험 임신지식은 정답률이 평균 55.5%로 중간 정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신생아 출산을 위해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고위험 임신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고위험 임신지식은 현재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며, 의료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산부인과 관련 전문가를 접할 기회가 드문 미혼여성은 고위험 임신지식과 고령임신의 출산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30세 이상 연령층의 임신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고위험 임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위험 임신지식의 문항별 비교 분석 결

과, 50% 이하의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다태아', '양수천자', '저체중아', '20세 이하 여성의 저체중아 위험'에 대한 지식으로 나타나 저출산 못지않게 저체중아와 미숙아 출산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고령임신이 저체중아와 미숙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것과 연령과 고위험 임신의 관련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고위험 임신지식은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신 관련 지식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고위험 임신지식은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inistry Health & Welfare (2005)에서는 전문가(의사나 간호사 등)로부터의 고령임신과 관련된 정보 획득을 하는 대상자는 15%미만의 낮은 수준이었고, TV/신문이나 이웃, 친구 등의 비전문가로부터 정보 획득이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고령임신과 관련된 지식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30세 이상의 미혼여성의 결혼관, 자녀관 및 고위험 임신지식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본 연구대상자인 30세 이상 미혼여성은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통적 결혼관이 낮게 측정되고 있어 대상자들의 결혼 지연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판단되며, 저출산 현상과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현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Jones, 2007)를 바탕으로 볼 때, 이러한 결혼 지연 현상은 앞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결혼관 중 가족공동 역할분담이 가장 높게 측정되어 결혼 후 가족공동 역할분담의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결혼지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조성하고 빠른 결혼진입을 위하여 가족공동 역할분담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남성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고령임신에 대한 관심과 가임여성의 고위험 임신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30세 이상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단순 서술적 조사 연구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무작위 표출방법을 통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30세 이상의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30세 이상 미혼 여성의 결혼관, 자녀관 및 고위험 임신지식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G도 소재 3개 시와 3개 군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미혼 여성 190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이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결혼관 영역 중에서는 가족공동역할 분담과 결혼지연성은 높았으며 전통적 결혼관은 낮았다. 전통적 결혼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계획, 자녀계획이었고 결혼지연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부모의 결혼생활, 결혼계획, 자녀계획이었다. 개방적 결혼관에 차이를 보인 것은 부모의 결혼생활, 결혼계획, 자녀계획, 거주 지역이었다. 또한 자녀의 필요성과 비혼 자녀 허용성은 낮았고 자녀 지연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필요성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출생순위,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결혼생활, 결혼계획, 자녀계획이었다. 자녀지연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직업, 소득수준, 가족 수,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결혼생활, 결혼계획, 자녀계획이었다. 대상자들의 고위험 지식에 대한 정답률은 55.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생활에 대한 역할모델이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가족 공동역할 분담이 가능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미혼여성의 결혼과 자녀출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임신과 출산에 따른 고위험 임신지식에 대한 다양한 간호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ek KA, Kwon HJ, Ryu SH.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3;19:36-47
- Bayrampour H, Heaman M, Duncan KA, Tough S. Advanced maternal age and risk perception: A qualitative study.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2012;12:100
- Choi JS, Lee NH. Policy issues on birth outcomes from shifting trends in childbearing. KIHASA 2011-37-3, Seoul, 2011;5-11
- Cho, JY. An analysis on the preference of unmarried people for marriage and maternity policy and on the tendency for attitude of marriage and child in low fertility society.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2011
- Choi SE, Ok SW.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iming at first marriage: Focused on the married men and women in the thirti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03;8:53-73
- Do MH.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wareness on marriage and childbirth to future marriage a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11; 12:163-178
- Jin MJ, Jung HE.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on intentions of marriage and expected age at first marriage.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2010;33:31-51
- Jones, GW. Delayed marriage and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07;33:453-478
- Jones G, Gubhaju B. Actors influencing changes in mean age at first marriage and proportions never marrying in the low-fertility countries of East and Southeast Asia. Asian Population Studies 2009;5: 237-265
- Kang EY, Chin MJ, Ok SW.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women's voluntary ever-singleness: Focusing on marriage and family valu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10;48:135-144
- Kim HH. The family values trends in a low fertility period: A survey analysi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single males and females aged 20-

- 29 years.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8
- Kim HS, Park JS, Jo EJ. The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of health care fields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2011; 5:131-146
- Kim JB. The study of moderating effects upon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marriage.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3;39:1-24
- Kim KS, Lee SM. Marriage-ideology reflected on the view of marriage of unmarried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98;1:27-43
- Kim MY, Song YS. Original articles: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2;18:303-311
- Kim SG, Kim YG, Jo A, Kim HR, Im SE. The 2009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Korea*, Seoul, 2009;3-24
- Kim TH. A Scheme for prosocial marriage and child values of Korean primary and high school student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7;124:15-24
- Kim, YN. A study on middle-school girls students' view of marriage and children according to their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Obstetrics* (4th). Koonja, Seoul, 2010
- Lee IS.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ow fertility and the implication of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5;57:67-90
- Lee JW, Lee YS, Kim HN. A study on family values and childbirth planning of university students.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2;51:81-117
- Lee SS.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06;26:95-140
- Ministry Health & Welfare. Nationwide survey of marriage and childbirth in 2012. [cited 2013 April 6]. available from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 Ministry Health & Welfare.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of high risk pregnant women in Korea.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ealth Promotion Support Group, 2005
- Na YM, Kim MK. Research on the values the pre parents generation places on marriage and childbirth.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2012;16:215-234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For further information. [cited 2013 June 10] available from www.oecd.org/employment/outlook
- Oh OW. Marriage outlook, health of the family of origin and sexual aware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09;15:232-240
- Park MI. Successful execution of 1,2,3 direction of motion problem 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5;17:53-56
- Shin HY, Bang ER. Individual values on childbirth and social view o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9;47:123-136
- Shin HY, Bang ER. Investigation of women's & men's view on marriage and birth.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7;494-495
- Song YM, Lee JS.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low birth-rate: Focused on the change in industrial society and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of women for social activ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1;31:27-61
- Statistics Korea. *Birth statistics in 2012*. [cited 2013 August 2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 Tough S, Benzies K, Newburn-Cook C, Tofflemire K, Fraser-Lee N, Faber A, et al. What do women know about the risks of delayed childbearing?.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6;97:330-334
- Yoo HJ, Hyun SM. The effects of economic resources on marriage-delaying.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010;33:75-101